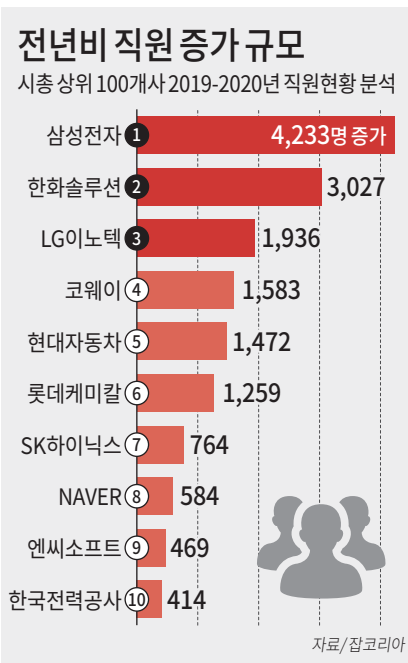


잡코리아, 지난해 100대기업 직원현황 분석

삼성전자, 직원수·채용증가율 1위

6개 기업 직원 1000명 이상 증가
삼성전자>한화솔루션>LG이노텍
코웨이>현대차>롯데케미칼 順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한파가 몰아쳤던 지난해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 직원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삼성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 2019년과 2020년 직원현황을 모두 공시한 66개사 직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직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삼성전자로 전년 대비 4233명 증가했고, 한화솔루션(+3027명), LG이노텍(+1936명), 코웨이(+1583명), 현대자동차(+1472명), 롯데케미칼(+1259명) 등 6개 기업 직원이 1000명 이상 증가했다.

이외에 SK하이닉스(+764명), 네이버(+584명), 엔씨소프트(+469명), 한국전력공사(+414명) 순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직원이 많이 증가한 기업 톱10에 들었다.

직원이 가장 많은 기업도 삼성전자로, 전체 직원수는 10만9490명이었다. 이어 현대자동차(7만1504명)가 2위를 차지했고, 이어 기아자동차(3만5424명), SK하이닉스(2만9008명), LG디스

플레이(2만5980명), 이마트(2만5214명), 한국전력공사(2만3551명), 롯데쇼핑(2만2791명), KT(2만2720명), 대한항공(1만8518명)이 직원이 많은 기업 상위 톱10을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남자직원수와 여직원수 모두 타 기업에 비해 가장 많았고, 남직원이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에 이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KT 순으로 주로 전기전자 반도체, 제조업계 기업이 많았다.

반면, 여직원이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에 이어 이마트, 롯데쇼핑, SK하이닉스, 대한항공, 기업은행 순으로 전기전자와 유통업계와 항공업계 등의 기업이 많았다.

지난해 남직원이 많이 증가한 기업은 삼성전자, 한화솔루션, 코웨이, LG이노텍, 현대자동차 순이었고, 여직원이 많이 증가한 기업은 삼성전자, LG이노텍, 한국전력공사,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순이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세종대, 세라믹연료전지 양극 신소재 개발

박준영 교수 연구팀

양·음이온 동시 전달 전극반응 극대화

세종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과 박준영 교수 연구팀은 전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송선주 교수 연구팀, 미국 메릴랜드대학 에릭 와츠맨 교수와 함께 양방향 프로톤 세라믹연료전지(RPCC)용 다종이온 전도성 미스핏 구조 양극 신소재를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전환해 전력을 생산하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는 국내외적으로 대용량 발전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반면 SOFC용 산소이온전도성 지르코니아 기반 전해질은 작동 온도(섭씨 700도 이상)가 높아, 최근 중저온(섭씨 500~700도)에서 작동 가능한 프로톤전도성 전해질로 대체해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PCFC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중저온에서 작동하는 PCFC는 탄화수소를 직접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효율 친환경 발전 기술이다. 또한 고온 수증기를 연료전지가역반응으로 전기분해 수소를 생산하는 PCEC도 차세대

고효율 그린 수소 생산 기술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PCFC와 PCEC는 프로톤과 함께 산소환원 및 발생반응 속도가 빠르고, 전극전위에서 안정적인 공기극 소재 기술이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공동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산소이온과 프로톤 등 양이온과 음이온이 동시에 전달 가능한 높은 전자전도체 신소재 전극을 개발하여 전극 반응을 극대화 시킴으로써 발전 성능을 향상시켰고, 전극에 대한 반응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또 개발된 양방향 RPCC 기술은 한 개의 전기화학장치에서 PCFC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과 더불어 유휴 전력을 이용하여 물을 전기분해 함으로서 그린 수소도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

이번 연구는 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혁신사업 '프로톤전도성 고체전해질 기반 저온용 SOFC 요소기술 개발'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 'Energy and Environmental Science' 온라인에 게재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교총 “정부, 교원을 잠재적 투기범 취급”

재산등록 대상 확대방안 반발
“부동산 투기방지 실패, 책임 전가”

부동산 투기 사태에 대응해 정부가 재산 등록 대상을 교사를 포함한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교사들이 대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5일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운동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과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교총은 “최근 정부는 LH사태를 빌미로 전 교원과 공무원 재산등록이라는 졸속대책을 내었고, 여당은 관련 내

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예방·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 삼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의 하윤수 회장은 “교원 등을 잠재적 투기범으로 취급하고 자금심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재산등록 대책과 법안을 끝까지 대응해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밝혔다.

교총의 이번 청원운동 전개는 정부가 교원 등 공직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산공개를 강행하고 있어서다. 교총은 “도대체 교원이 무슨 업무상 부동

산 정보나 기밀이 있어 투기를 하고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투기 근절은 커녕 행정력 낭비와 교원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범 죄에 이용되거나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전체 교원 등의 재산공개 추진은 외국에서조차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등록은 관련 업무 공직자 등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정해 시행하고, 차명 투기 적발 등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성대, 소상공인·자영업자 기술개발 지원

혁신형 기술개발사업 기관 선정



한성대학교 캠퍼스

/한성대

한성대학교는 산학협력단 공학컨설팅센터가 서울권역에서 유일하게 생활 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진단·기획 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기술 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소상공인의 생활밀착형 기술개발 과제단계에서 진단·컨설팅 및 개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이 참여 가능하며,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제품·공정·서비스 개발 등 연구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사업목적에 맞게 지원할 수 있다.

한성대는 진단·기획 단계에서 대학이 가진 인적·물적 인프라 등을 활용해

개선 방안을 기획·컨설팅하고 기술개발단계에서는 기술·제품·공정 등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에 대해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성대는 4월15일까지 소상공인의 생활밀착형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업신청을 받고 있으며, 접수는 우편접수와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또는 한성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건국대, 이사장 직속 'ESG위원회' 신설

학교법인 ESG경영 실천 본격화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국내 대학 최초로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경영 실천을 위한 기구인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ESG경영'을 도입한다고 5일 발표했다.

학교법인 내에 이사장 직속으로 신설된 ESG위원회는 산하에 3개 분과(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를 두고,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안건을 상정, 심의, 의결하게 된다.

건국대 학교법인은 의료, 농업과 농촌발전 및 교육을 통해 누구나 사회에 앞장섰던 설립자의 정신을 이어받아 신설한 ESG 위원회를 통해 탄소배출량 감축 노력과 친환경 에너

지 도입,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고용·안전·인권과 청년창업 등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과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실천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건국대는 식민지 시절이던 1931년 구료제민과 의료보국정신으로 민중병원을 설립한 상허 유석창 박사가 이 병원을 모태로 1946년 설립돼 올해 창학 90주년을 맞는다.

학교법인 건국대는 산하기관으로 교육기관(중·고교·대학), 의료기관(건국대 서울병원, 중주병원)을 비롯해 사업체(건국유업&햄, 더클래식 500, 건국AMC, 펜타즈호텔, KU골프 파빌리온, 건국빌딩, KPC)를 운영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덕성여대 이은옥 교수 복식문화학회 회장 선임

덕성여대는 텍스타일디자인전공 이은옥 교수(사진)가 지난 3일 열린 2021년도(사)복식문화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 학술대회에서 제15대 복식문화학회 회장으로서 선임됐다고 5일 밝혔다.



회장 임기는 2021년부터 2년이다. 복식문화학회는 1993년 설립한 의류학 분야 대표 학술단체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복식문화연구'를 연 6회 발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해 연구자 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성신여대, 학점은행제 미용학 신입생 모집

평생교육원 5월초까지 원서접수

성신여대 평생교육원은 주중반(5월)과 주말반(7월) 학점은행제 미용학 직장인반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메이크업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 피부관리전문가, 병원 코디네이터 등 현직 재직자뿐만 아니라 미용학 분야의 이직이나 전문지식을 희망하는 직장인이다.

4년제 학사학위를 가진 경우 전공 48학점만 취득하면 성신여대 미용학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며, 성신여대 연계진학을 통해 뷰티융합대학원과 일

반대학원(뷰티산업학과) 석·박사 학위 취득도 가능하다. 학비는 일반대학의 50% 수준이다.

주 1일 수업을 통해 최대 12학점(3~4과목) 수강이 가능하고, 1년 3학기 운영으로 최대 42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주 1일 수업으로 학사학위 소유자는 1년 6개월, 전문학사 소유자는 2년 6개월, 고졸자는 3년 6개월 안에 미용학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셈이다.

평생교육원은 5월 초까지 직장인반 신입생 원서접수를 진행하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인정 대상자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면접만으로 입학이 가능하다.

/세종=한용수 기자